선진국형 계란유통의 바람은 봄소식과 함께 남쪽으로 부터

이 학 복
(성일농장 대표, 본회 이사)

생산자가 단합하여 계란가격을 제값 받는 대표적인 예로 부산·경남지역의 양계인들을 들수 있다.

농산물을 생산자들이 주도권을 갖고 단결된 힘으로 가격을 결정해 나가는 경우는 이 지구상에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부산·경남지역의 양계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냈으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어디까지 와있는지 알아본다.

한때는 상인들이 난가 결정

18년전에는 이지역에도 현재의 서울·경기 지역처럼 상인들이 계란가격을 결정하였다. 당시는 용호조합이(부산시 용호동의 정착촌) 하루17만개의 계란을 생산하여 이지역에서는 가장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고 대상인들은 판매보다는 물량확보가 더 중요 하였기 때문에 용호조합과 결합하여 난가를 형성해 나갔었다.

용호조합 계란은 50원에 구입하여 53원에 판매하고 주위 군소 양계장것은 47원 내지 49원에 구입해서 53원에 판매해 작은 농장들에서 상인들은 큰이익을 볼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작은 농장들이 큰 손해를 보았던 시기이였다.

당시 오경농장처럼 상인들에 호락호락하지 않는 다루기 힘든 농장은 상인들이 도매상에나, 소매상에 판매하는 2원 마진중 1원을 줄여 용호 조합에 비하여, 50전내지 1원 더 받는데 긍지를 느끼며 양계를 해오고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 상인들이 생산자들을 마음대로 요리하던 상인들에게는 요순시대가 오랜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나 오경농장의 생산량이 하루 10만개를넘어서자 자체 힘이 생겨나 오경이 스스로 부산 일부지역의 난가를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부산 일부지역이지만 난가 결정의 주도권이 무너지자 상인들도 난우회(卵友會)를 만들어 단결하여 실력을 과시하기 시작하였다. 예나 이제나 계란값은 년중 수요의 진폭이 크기 때문에 하락시에는 가장 많은 물량이 생산되는 용호조합을 집중 공격하여 계란을 가져가지 않아 용호조합은 당황하게 되고 자연 계란값은 용호조합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반대로 주위 소군업자는 봐주는 시대로 바뀌었다. 상인들도 난우회로 뭉쳐 힘이 커지니 다시 상인들이 계란값을 요리하게 되었고 트럭등 운반수단의 보급으로 외지 계란도 들여와 부산의 계란값은 다시 혼란시기에 들어가게 되었다.

뭉쳐야 산다는 평범한 진리 깨달아

많은 시련을 당하면서 양계인들은 상인들의 난

우회와 대결하기위해 양계협회 부산경남지부로 모이게 되고 지부가 주축이 되어 용호조합도 지부를 중심으로 뭉칠 것을 3년에 걸쳐 설득하니 3년간의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하여 다시 생산자가 난가 형성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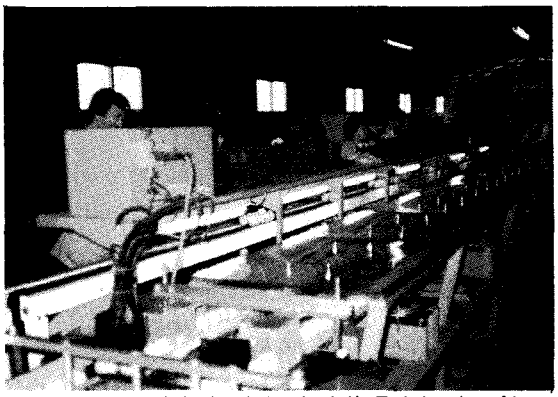
중간거점 확보가 성패를 좌우한다

부산 경남지역의 대량 생산단지는 용호조합, 오경농장, 김해 덕천조합, 경주 희망원, 대동조합 승아원 등인데 이들 단지는 판매 창구가 일원화 되어있어 이들 6개 단지를 합하면 부산 소비량의 70%를 장악하게 되어 난가조절을 지부에서 장악하게 되었다.

외국의 경우에는 시장 30%만 점유해도 가격 조절이 가능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50%는 되어야 한다. 전체 물량의 50%가 단결하기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며 부산의 경우처럼 많은 생산자가 뭉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6개의 전권을 위임받은 단지장의 단합은 가능하므로 중간거점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수 있다. 서울 경기지역도 생산자들의 단결을 위해서는 전권을 위임받은 출구가 단일화된 생산자 거점조직이 필요하다. 계우회도 좋고 조합이라도 좋다. 앞으로도 이들 6개 단지가 계열주체가되어 이들을 중심으로 부산지역의 양계산업은 발전되어 갈것이다.

생산자 단결로 년간 15억 이익

생산자가 단결하니 서울지역보다 계란 개당 3원을 생산자가 더받는다. 하루 부산지역에서140만개가 생산되니 월 1억2천6백만원, 년간 약15억원이 부산지역생산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되었다. 이제 이러한 이익은 생산자 모두가피부로 느끼게 되어 2～3년 주기로 전개되는 상인과의 대결에 필요한 자금1～2억정도의 결손은 달게 감수하게 되었다. 년간 15억의 이익을 얻으



△전자식 G.P 기계는(대한에그날 제작) 국산화율이 90%로 부품공급이 용이하다.(금년말까지 100% 국산화할 예정)

니 1～2억정도 사용하는 것은 아깝지 않게 되었고, 상인들은 생산자를 더욱 높게 평가하게 되었다. 생산자가 뭉치면 상인 조직은 무너진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생산자들은 눈에 보이는 1～2억원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15억원을 놓치고 만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는 눈을 갖지 않으면 생산자들의 단결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서울지역의 상인들이 단합하여 돈을 버는데 부산지역 상인들은 이들과 비교하게 되어 상인들이 단합하는 계기가 되어 2년에 한번씩은 서로 단합의 강도를 시험하는 대결이 벌어진다.

해마다 6월말경이면 계란의 소비가 가장 적을 때이며 이때 우기(雨期)라도 겹치게 되면 생산자는 계란을 버리는 경우도 있게 된다. 상인들이 이기회를 놓칠리가 없다. 그해도 6월27일 까지 비는 계속되어 고온 다습으로 곰팡이가 번식하여 계란을 장기간 보관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2년 주기로 상인과 힘겨루기 시험

상인들은 공탁금을 걸고 여관하나를 얻어 생산자들이 굽히고 올때까지 여관에서 버티는 작전을 펴왔다. 상인들은 충분한 물량을 외지에서 반입하여 농장에서 계란을 가져오지 않아도 몇 일을 장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생산자들도 전열을

다듬고 140만개 생산되는 모든 물량의 출하를 중지시켜 5 일을 버티었다. 7 월1 일부터 해수욕장이 개장되므로 관상대와 협조하여 매시간 기상통보를 받으며 생산자들은 소매상에 계란이 떨어지면 협회로 연락하라는 광고를 하고 24시간 대기하고 전화가 오면 밤에도 생산자가 배달하였다.

하늘은 생산자 편이어서 해수욕장 개장날에 날씨가 맑게되어 소비가 늘자 협회를 통해 계란을 공급받아 5만개를 팔던 상인이 모두들 장사를 안하니 30만개를 팔게되어, 공급받지 못하는 소매상들이 계란을 공급해 줄것을 요구하자 7월 2일 상인조직은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말았다.

2년 주기의 상인과의 대결에서 생산자들은 중소매상들에 신선하고 원하는 등급의 품질좋은 계란을 도매상에 진 외상을 생산자가 부담하며 계란을 공급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감히 상인들이 섣불리 대결하지 못한다.

중·소매상들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이들중 몇개 업체를 선정하여 공급하면 상인 단결은 쉽게 무너질수 밖에 없다. 이제는 생산자들이 악덕상인을 선정해서 그가 거래하는 중·소매업자를 공격하기 때문에 악덕상인이 자취를 감춘지도 오래 되었다.

생산조절이 성패의 열쇠

오경농장의 경우 계란값이 안정되고 수지가 맞으니 생산량이 늘어나게되고 이를 조정못할 경우에는 과잉생산으로 어쩔수 없이 다시 옛날로 돌아 갈수 밖에 없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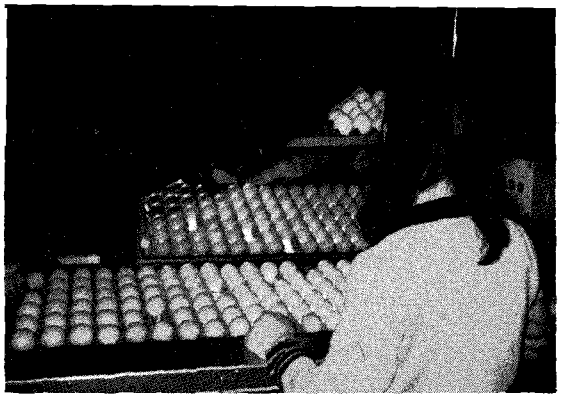
84년 1 월 22개 농장이, 85년 1월에는 57개로, 86년 3 월에는, 60개 농장으로 3 군데에 걸쳐 크게 확장일로에 있다.

아직은 수요가 증가하고 부산 소비량을 부산 근교에서 전량 생산하지 못하고 외지에서 약20 % 정도 수입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얼마가지 않아서 생산량이 늘면 새로운 문제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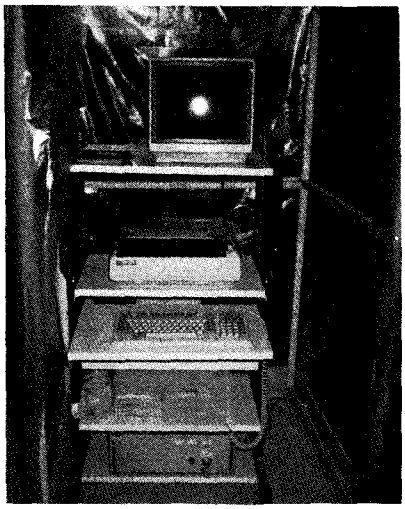
단결된 힘으로 생산 조절

전남과 전북의 예에서 경험한것 처럼 한때는 전주(全州)가 생산자들이 단결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받았는데 수익이 높으니 규모들을 확장해서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받는곳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거울삼아 부산의 경우에는 판매창구를 일원화 하고 단결된 힘으로

△사용자가 원할 경우 포장까지의 모든 공정을 자동화할 수 있다.



△선별실에서 파란, 혈란, 육반, 기형란이 골라진다.



◁ 콤퓨터에는 농장별 특·대·중·소·경란 갯수와 비율 규격외 란의 숫자까지 기록된다。

스스로 생산조절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생산과 경영의 기술혁신통해 소득 증가시킨다

양계장 확장에 사용할 돈으로 계란과 사료의 수송회사 G·P센타, 도계장, 계란가공 공장, 계분비료공장 제품 판매회사등의 2 차산업에 투자하여 계사 확장보다 더 큰 소득을 얻도록 유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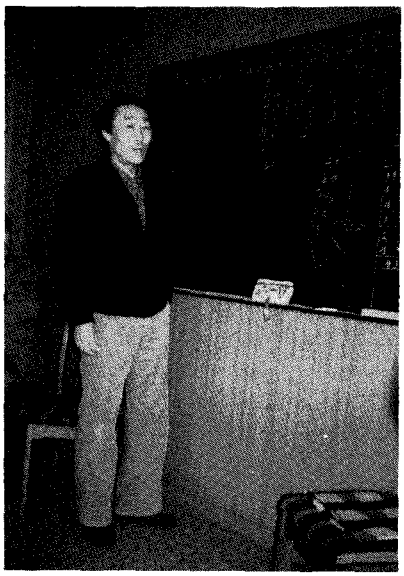
소비자는 왕이다. 이제 부산지역은 계란가격의 결정권을 생산자가 장악하여 년간 15~20억원의 추가 소득을 올리는데에 만족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항상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변화하는 주변여건에 대처하여 더 큰 목표를 향하여 새로 제2 의 도약을 설계하고 추진하고 있다. 계란도 하나의 상품으로 품질을 높이고 가격은 낮추는 작업이다. 평범하고 누구나 다 잘아는 목표 같지만 이를 실천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였다. 김중경 전지부장이 미국 채란양계산업을 시찰하고 83년도에는 지부 채란분과위원들이 일본 채란업계를 시찰하고 85년 지부 실무직원과 채란업자들이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채란업계를 시찰하여 직접 보고 느낀것이 모든 회원들에게 파급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G·P센터 설치

이들은 우리도 몇년 안가서 현재의 일본과 같이 신선하고 위생적인 계란을 공급하지 않으면 양계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경농장의 경우에는 더욱 이문제를 피부로 느꼈는데 여름철 고온-다습기에는 오경알이 품질때문에 크게 부족한 것을 경험하고 소비자들이 벌써 품질을 중히 여기며 상표를 보고 구매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생산자들은 계란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상표보고 구매

오경농장은 바로 실천에 옮겼다. 우선 G·P 기계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처음 사업이니 기계의 부품공급과 아프터써어비스를 받기위해 국내제작진에 의뢰하고 국내서 생산되지 못하는 부품이나 생산하더라도 수입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낮은 부품은 수입하여 시간당 2 만5 천개를 처리할수있는 기계를 대전의 대한특수기계에서 공급 받았다. 대한특수기계는 오경농장으로 인해서 일본의 에그날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부품공급등 기술지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제품의 품질이 일본에서 생산된 것과 차이가 없고 엔화의 상승으로 이제는 생산량 전량을 일본으로 수출하게 되었다. 부산의 한 양계장이 기계공업의 발전과 외화획득에까지 공헌하게 되리라고는 미처 생각치 못했었다. 서울에도 한국냉장(주)이 G.P센타를 시설했으나 계란의 구매와 포장등 처리비용이 높아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경농장은 더욱 세밀한 조사와 준비가 필요하였다. 우선 중산층이상이 이용하는 슈퍼마켙에 오경위생란을 공급하였다. 농장에서 직접 처리하니 조작비가 적게 들고 24시간 이내에 소비자 손에 들어가니 신선하고 계란품질을 위해 사료도 특별주문 배합하였



◁ 김중경 사장은 부산·경남지역 양계산업의 오늘이 있도록 이끌어온 공로로 제26회 농업기술자대회 본상을 수여했다.

다. 2개월만에 부산시내 슈퍼에서 소비되는5만개의 계란은 오경위생란으로 완전 대체 되었다. G.P처리비용이 약 7원 되지만 농장에서도 등급구분에 필요한 인건비 2원을 감안하면 5원 더 비싸지만 포장이 되었고 물로 씻어 깨끗하고 혈난 육반난 등을 골라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위생란을 선호한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위생란 소비증가일로

아직 서민층 공업용 업소에서는 값싼 것을 찾지만 위생란의 소비는 매일 증가일로에 있다.

이제 생산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경로가 단순화 되었고 대량유통 대량소비의 길이 열리기 시작 하였다.

서울의 경우 2~3개월 내에 위생란으로 하루 50만개는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이들은 서울의 시장조사까지 이미 다해놓고 있었다.

주부들의 심리가 값싼 계란은 소비자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위축감과 끼니마다 위생란을 사먹지 못하는 신세한탄을 하게 되니 5원 차이면 위생란을 찾을 수 밖에 없게된다. 위생란의 보급이 급속도로 늘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유통혁명의 바람은 불기시작하였다

오경농장의 경우 기계 상각비 등 모든 비용을 합해도 하루 5만개만 처리하면 손익 분기점을넘어 선다고 한다. 서울근교에는 하루 5만개의 계란을 생산하는 농장들도 많으니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계란유통의 혁명은 꽃소식과 함께 부산으로부터 서서히 북진하여 오고 있다. 아직도겨울인가 하였더니 벌써 개나리가 꽃망울을터뜨리기 시작하는 봄이 왔지 않은가?

어느새 서울에도 한국계란유통(주)이 탄생하여 부산에서의 성공을 서울에서 재현하고 있지 않은가?

생명체는 주위 여건만 맞으면 싹을 티우고 성장하게 마련이다.

△소비자는 영양많고 값이 싸서 보다는 신선란도에 따라 계란을 선택한다.

지난 2개월간 서울지역에서 상인들의 심한 횡포는 생산자들에겐 춘화현상(春化)을 가져왔다.

생산자들의 마음 속에 유통구조를 근대화하려는 씨앗이 잉태하였기 때문에 이제 난각을 뚫고 부화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아직도 무정란을 품고 병아리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양계인들이 불쌍할 뿐이다.